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해양에너지 개발 동향
경제 이슈: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
문제점과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세심록

빵은 반으로 나누어도 빵이지만 어린 아기는 그렇지 않다

Book Review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심층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소비자물가 상승세 14년 만에 최저

- 통계청 발표한 '2013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8% 상승하여 1999년 9월(0.8%) 이후 14년 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
 - 하락 부문: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채소, 과일 등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3.8% 떨어졌고, 국제원유가격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도 하락
 - 상승 부문: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공업제품이 전년동기대비 0.8%, 전세, 월세 가격도 각각 3.1%, 1.6% 상승하면서 가격 불안정성이 높았음
- 최근 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 회복과 공공요금 인상의 가시화에 따라 연말에 물가 상승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금융 동향: 미국 행정부의 섣다운 조치 등에도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섣다운 조치와 디폴트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27일 2.83%에서 10월 8일 현재 2.85%로 0.02%p 상승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투자자금 꾸준한 유입 등으로 9월 27일 1,075.0원에서 10월 10일 현재 1,074.0원으로 1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미국 행정부의 섣다운 조치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국내외 투자자의 저점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9월 27일 2,011.8에서 10월 8일 2,002.8로 9p 하락에 그침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9/27	10/8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 ^p	2.3	-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8	-0.9	0.9	3.4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1	1.3	0.8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1	3.0	-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198.0	57.4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67	2.83	2.85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2.8	1,075.0	1,074.0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63.3	2,011.8	2,002.8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9월 27일은 8월, 10월 8일은 9월 수치임.

□ 산업 이슈: 해양에너지 개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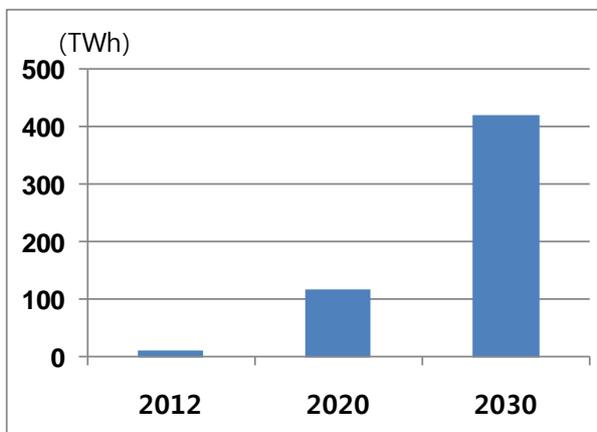
○ 해양에너지 개요

- '해양에너지'란 바다의 조수, 해류, 파도, 온도 및 염도차 등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의미
 - 해양에너지는 공해가 없고, 거의 무한정의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음
- 해양에너지는 크게 조력 발전, 조류 발전, 파력 발전, 해수온도차 발전, 해수염도차 발전 등으로 분류

○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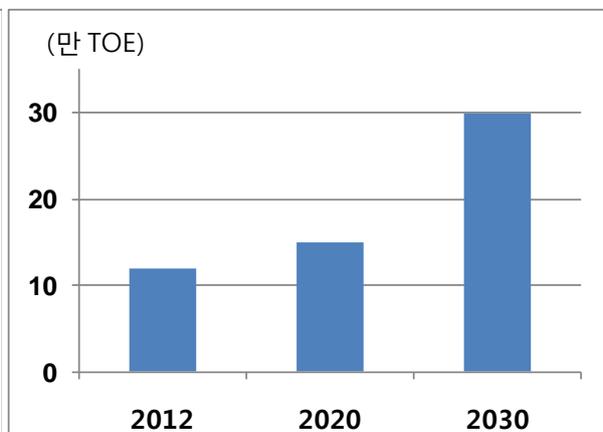
- (세계 시장) 세계 해양에너지 생산량은 2015년 13TWh에서 2020년 119TWh, 2030년 420TWh로 연평균 26% 성장 전망
- (국내 시장) 국내 해양에너지 생산량은 2012년 12만TOE에서 2020년 15만TOE, 2030년 30만TOE로 연평균 5% 성장 전망

< 세계 해양에너지 생산량 전망 >



자료: World Energy Revolution(2010).

< 국내 해양에너지 생산량 전망 >



자료: 지식경제부.

○ 부문별 개발 동향 및 특징

- (조력발전) 해양에너지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이루어졌으며, 방조제를 이용한 '조지식'을 중심으로 발전
 -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중국 등에서 실용화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미국이 투자를 확대
 - 우리나라는 2010 년부터 시화호에서 조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로 추가 건설에는 난항
- (조류 발전)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다양한 발전 시스템이 연구중이며, 실증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영국, 스웨덴에서 조류 발전의 연구개발 및 실증 운영이 가장 활발
 - 우리나라는 연안의 조류 흐름이 강한 울돌목이나 장죽수도 등에서 실해역 시험 및 기술개발이 진행 중
- (파력 발전) 조력· 조류 발전과 달리 정확한 장기예측이 어렵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아 상용화가 지연
 - 영국 등 유럽 해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미국, 호주 등이 가세
 - 우리나라는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증시험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 중
- (해수온도차 발전) 미국과 일본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실험실 수준의 연구가 진행 중
- (해수염도차 발전)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지에서 소규모 연구가 진행 중

□ 경제 이슈: 2014년 국내 경제 전망¹

□ 2013년 경제의 특징

- 2013년 한국 경제는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연간으로 잠재성장률 3.8%에 크게 못미치는 2%대 중후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임. 물가는 1%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따라서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갭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 내수 측면에서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가 급등 등으로 인하여 증가세가 부진한 모습을보였음.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및 추경 편성 등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회복세 미약. 외수 측면에서는 세계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는 낮게 유지될 전망. 수입 부진이 심화되어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

□ 2014년 대외 경제 여건

- 세계 경제는 선진국 주도 경기 회복세
 - 2014년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가 전망됨. 선진국 경제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신흥개도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2013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세계 교역량도 5%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세
 - 국제 원유 가격은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 미국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가격 인하 등의 요인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됨. 기타 원자재 가격 중 금속류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전망. 농산물 가격은 국제밀 위주의 생산 증가가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 우려도 상존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3-42호, 2013. 10. 04 "2014년 국내 경제 전망" 을 요약 정리.

○ 유로화와 위안화 절상 기초

- 유로화는 유로존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며 미약한 절상 추세가 전망됨. 위안화는 중국 국제교역에서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 상승과 중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절상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면 엔화는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절하 추세가 전망됨

□ 201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경기 개관

- 경제 성장 : 2014년 경기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 수출 증가가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견인. 2014년 경제성장률은 2013년 2%대에서 3%대 후반으로 상승하여 잠재성장률 수준 달성 전망
- 내수 부문 : 소비는 가계부채, 전세값 급등, 고령화로 인한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교역조건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율 상승. 투자 부문 중 건설투자는 2014년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임.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임
- 외수 부문 :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 경기 여건은 좋을 것으로 예상됨

○ 내수 부문

- 민간소비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인한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구매력 증가, 가계 실질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2%대 후반 증가 예상
- 설비투자 : 국내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민간부문의 기계수주 회복 등으로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로 6%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 : 정부의 SOC 예산 절감 계획으로 공공부문의 건설투자가 감소할 것이나 부동산 대책에 따른 민간 주택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증가하여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대외 거래

- 2014년 미국의 경기 회복세, 유로존 경기 부진 탈피 및 중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 등으로 수출입 증가율은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 수출은 대미국 및 대유럽 수출 회복, 중국을 통한 중간재 수출이 확대되면서 연간 8%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각각 399억 달러, 490억 달러로 흑자는 지속되나 수입 증가로 흑자 폭은 2013년 대비 축소될 전망

○ 고용과 물가

- 고용 : 2014년 기업투자 및 민간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에 두는 국정기조가 유지되면서 실업률이 소폭 하락할 전망
- 물가 :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과 명목 임금 인상 등 공급 측 요인으로 2013년 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 다만 2014년에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 등은 물가 상승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원화 환율

- 2014년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2013년 대비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과제

○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 유턴 유인, ICT 융합 촉진, R&D 확대 등 필요. 경제 민주화의 속도 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
-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

-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 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
 -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
- 원화 환율
- 2014년에 원화는 경상수지 흑자 기초,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양호한 한국 경제 펀더멘탈 등으로 2013년 대비 소폭 절상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과제

- 2014년 국내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에 더하여 대내외적으로 잠복해 있는 교란 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존. 이에 따라
 - 첫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인구 측면에서는 고령화 및 정년퇴직, 여성인력 활용 미흡, 청년실업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필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세제·재정·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제안 필요. 창조 경제 및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제조업 유턴 유인, ICT 융합 촉진, R&D 확대 등 필요. 경제 민주화의 속도 조절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

- 둘째, 소비 여력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층의 소비여력 제고 정책 필요
- 셋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배가
 -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 노사정 대타협, 수도권 투자 걸림돌 제거, 투자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필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8.28 대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 또한 SOC 투자 확대(정부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 BTO, BTL 방식 활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넷째,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추진
 - 과도한 복지가 재정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 복지 확대는 불가피한 것이나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임.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증세,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응
- 다섯째, 대외 교란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일본 아베노믹스 실패 우려, 중국 경착륙 등 글로벌 시장 급랭에 대비.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국제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환율 및 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체제 구축. 수출 신시장 개척 및 FTA 활용 등을 통한 대외 충격을 최소화. 한편, 해외 시장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육성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강화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2014년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구 분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2.0	1.9	3.3	2.6	3.9	3.6	3.8
	민간소비(%)	1.7	1.6	2.3	2.0	2.8	2.6	2.7
	건설투자(%)	-2.2	5.2	2.5	3.7	1.7	3.3	2.5
	설비투자(%)	-1.9	-8.2	5.8	-1.5	9.8	3.9	6.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431	298	322	620	215	275	49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200	268	468	171	228	399
	수 출 (억 달러)	5,479	2,765	2,883	5,648	2,973	3,150	6,123
	(증가율, %)	-1.3	0.6	5.6	3.1	7.5	9.3	8.4
	수 입 (억 달러)	5,196	2,566	2,614	5,180	2,802	2,922	5,724
	(증가율, %)	-0.9	-2.9	2.3	-0.3	9.2	11.8	10.5
소비자물가(평균, %)		2.2	1.4	1.5	1.4	2.2	2.6	2.4
실업률(평균, %)		3.2	3.4	3.2	3.3	3.2	3.0	3.1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27	1,101	1,095	1,098	1,080	1,060	1,070

□ 이슈: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 문제점과 성공창업을 위한 제언

□ 요약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되고, 현재 56세인 1954년생 남성의 경우, 94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그중 40%는 98세까지 생존한다는 예측치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1955년~63년 사이 출생) 세대는 714.9만명(2012년), 취업자는 532만명으로 2008년 이후 본격적인 퇴직시기에 직면, 2012~'17년 기간 중 베이비부머 취업자는 연평균 14.5만명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정년퇴직」은 15.0%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자발적 퇴직이며, 퇴직 이후 고령층(55~79세)의 남성 중 72.5%, 여성의 경우 47.2%가 계속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가 27.6%에 이르고 있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 청소원·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직종이 대부분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자의 상당수는 손쉬운 자영업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국내 자영업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 자영업 비중은 28.2%에 달하며, OECD 평균(15.5%)의 2배 수준으로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80.2%)이며, 창업준비기간도 짧고,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창업으로 인해 창업후 생존율이 매우 낮아, 전체 소상공인의 창업후 5년 생존율은 43%, 도소매의 경우 37%, 음식점종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의 창업 및 경영실태, 향후 국내외 경기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자영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확대,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땅한 재취업의 길이 없는 베이비 부머 퇴직자의 대거 자영업 유입은 자영업 시장의 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특히,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음식점, 주점·유흥서비스업종 등으로 쏠림 현상을 유발될 수 있다.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또한 실패시 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철저한 준비와 실패까지도 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예기치 않은 재해나 질병, 사고 등에 대한 대비까지도 계산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트렌드를 읽고 시대 흐름에 동승하여야 성공창업이 가능할 것이다. 수십년간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결합한 퇴직자는 청년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시니어 퇴직자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평균 수명의 연장, 100 세 시대에 직면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 2000 년 65 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 진입, 20018 년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1.15, 한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8세, 여성은 83.2세(2011년 OECD 한국정책센터)
 - 현재 56 세인 1954 년생 남성의 경우, 94 세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그중 40%는 98 세까지 생존한다는 예측치도 제시

○ 베이비 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 시기 도래

- 베이비 부머(1955년~63년 사이 출생) 세대는 714.9만명(2012, 통계청)으로 생산가능인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고, 취업자는 532만명으로 취업률은 74.3%
 - 그러나, 2008~'12 년 기간 중 전체(15~64 세) 고용률이 소폭(0.5%p) 상승하는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용률은 큰폭 하락(76.8→74.3%, 2.5%p 하락)
- 이들 세대는 2008년 이후 본격적인 퇴직시기에 직면, 2012~'17년 기간 중 베이비부머 취업자는 연평균 14.5만명 감소 예상
 - 2017 년, 전체가 평균퇴직연령(54~62 세)에 진입, 고용률 74.3%에서 65.0%로 급락 전망
 - 종업원 300 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4 세(2011 년, 고용노동부)로 나타났고, 희망 퇴직연령은 평균 62 세(2012.12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 퇴직자의 대부분은 비자발적, 퇴직이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 (2011년) 우리나라 고령층(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5%로 OECD 국가 평균인 12.7%보다 매우 높고, 일본보다 10%p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59 세 이하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며, 60 세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정년퇴직」은 15.0%에 불과,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에 의한 경우는 11.0%,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은 23.6%로, 건강상 문제는 22.2%(2013.5월, 통계청)로 나타나 대부분 비자발적 퇴직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퇴직이후 고령층(55~79세)의 남성 중 72.5%, 여성의 경우 47.2%가 계속 일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2012년, 통계청)
 - 우리나라 고령자층 빈곤율이 45%(2008 년)로 34 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OECD 평균 15%). 한국에서 완전히 일을 그만 두게되는 평균나이는 남성이 71.4 세, 여성이 69.9 세(OECD, "고령화와 고용정책 보고서")라는 통계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임

○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 (2013.5월, 통계청) 고령층 인구는 1,091만7천명으로 15세이상 인구(4,204만7천명)의 26.0%를 차지하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58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8천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502만명으로 10만8천명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578 만 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 만 2 천명이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10 만 9 천명으로 6 천명이 증가하였음
- 고령층 고용률은 53.0%, 실업률은 1.8%이며, 이중 55~64세의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2.3%였으며, 대부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65~79세의 고용률은 38.3%
-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3.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농림어업 21.2%, 도소매·음식숙박업 19.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취업자(임금근로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7.6%,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0.3%,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9.7% 순으로, 15세 이상 취업자 전체와 비교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은 높고,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비중은 낮은 특징
- 단순 노무직의 경우 청소원· 환경미화원, 경비원 및 검표원 등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 최저임금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상황

□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과 실태

○ 용어의 정리

- 현재, 국내에서는 언론, 정부 정책자료, 통계 발표자료 등에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체, 소상공인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
- “자영업자”란 스스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으로 피용자가 아닌 ‘스스로 고용된 자(self-employed)’를 지칭하며, 통계청의 자영업자 범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
-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수 기준 제조업 10인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의 사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말하며,
-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점포 형태의 모든 사업자를 말하며, 개인사업체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임
- 자영업자에는 고소득 자영업과 전문가 그룹의 지식서비스, 전문과학서비스 업종과 온라인점포 등도 포함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체 비교

총 계	소상공인('11)	자영업자('13.7)	개인사업체('11)
사업체수	283만개(통계청)	5,750천명(통계청)	5,178천개(국세청)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10인) 사업자등록증(법인 포함)·영업장 보유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점포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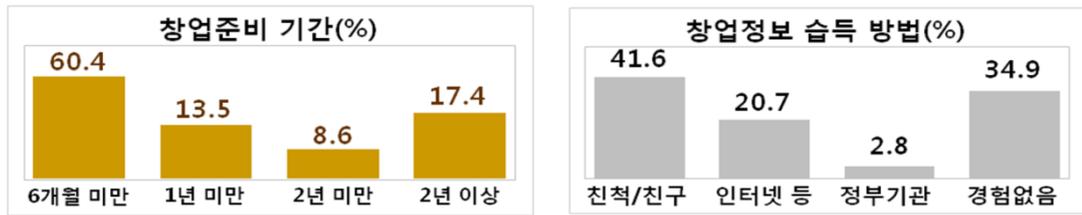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현황

- 2013년 7월 현재 자영업자는 57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500만명의 22.6%에 달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7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 업종별로 보면 21.5%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에 9.3%로 전체의 30% 이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 치중
- 한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사업체(2011년)는 283만개로 555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 이중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생활형 서비스가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즉 수도권이 47% 수준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
-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28.2%에 달하며, OECD 평균(15.5%)의 2배 수준에 육박, 과포화 상태로 자영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한 구조
 - 신규창업(2011년)이 994천명, 폐업 845천명으로 매년 90여만개의 자영업이 창업하고, 85만여개가 폐업을 하는 상황

○ 자영업(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실태

- 소상공인 창업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80.2%)이며, 창업준비기간은 6개월 미만(60%)으로 짧고, 관련 정보도 지인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40%, 창업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경험이 없다는 경우도 35% 수준에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
 -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창업으로 인해 창업후 생존율이 매우 낮아, 전체 소상공인의 창업후 5년 생존율은 43%, 도소매의 경우 37%, 음식업종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실태



- 최근 대형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확대와 신업태의 확산 등 자영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 SSM 점포수(누계) : (2005) 252 → ('07) 347 → ('09) 654 → ('11) 980 → ('12) 1,076 → ('13.7)1,106
 - 대형마트 매출액(조원) : (2007) 29.8 → ('09) 33.2 → ('11) 35.9 → ('12) 44.4
 -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익률(%) : (2006)19.7 → ('08)18.1 → ('10)17.2

○ 향후 국내외 경기 전망과 자영업 경영여건

-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도 국내 자영업의 활성화 여부는 내수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내수경기는 세계경제의 회복 여부에 좌우되고 있어 향후 수년간의 국내외 경기 전망을 살펴볼 필요
- IMF는 세계경제가 2012년을 바닥으로 2016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회복속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전망
 - 2012~16 년 국내경제는 연평균 3.5% 성장이 예상되며, 2015 년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와는 달리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내수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다만, 민간소비 부문에 있어서는 취업자증가율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2012년도 보다 높아 2013년 이후 소비증가세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나,
 - 이 역시 2013 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 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 분석에 의할 경우 2014~'15 년간 반짝 회복세 이후에는 다시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국회 예산정책처,『2013 년 및 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보고서, (2012.11)
- 최근의 창업 및 경영실태, 향후 국내외 경기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자영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책자금 지원확대, 경영혁신 지원,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자생력 확보에 한계

□ 퇴직자와 자영업 창업

○ 임금근로자의 퇴직 후 선택, 자영업 창업

- 앞에서 살펴본 바, 퇴직자들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나, 퇴직후 재취업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사전계획이나 경험없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 (2013.9 월 소상공인 실태조사) 현재 사업운영중인 10,381 개 사업체 중 35.3%가 직전 직업이 타직종 근로자이며,
 - 자영업 창업의 동기 중 “다른대안이 없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82.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 비자발적 퇴직자의 상당부분이 생계형 자영업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추정 가능
- 또한,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는 19.3%(2010년, 통계청)에 불과하고, 50대 이상은 50.9%에 이르고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50 대 이상의 분포가 2010 년 49.9%에서 2013 년 56.4%(2013 년, 소상공인실태조사)로 지속 증가, 고령화 추세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러시가 반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베이비 부머 퇴직자의 자영업 창업에 따른 문제점

- 베이비 부머 세대 퇴직자의 자영업 유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 5월(2.7만명 감소) 이후 5년3개월 간에 감소세에 있던 자영업 수가 2011년 8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어,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마땅한 재취업의 길이 없는 베이비 부머 퇴직자의 대거 자영업 유입은 자영업 시장의 구조를 왜곡하게 됨.
 - 자영업이 증가하면 경쟁에 의해 도태되고 적정수로 조절된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나, 도태되는 개체수 이상 새로운 유입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
- 특히,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음식업(2002~'12년 10년간 음식업 창업은 29.3% 차지), 주점·유흥서비스업종 등으로 쏠림 현상을 유발
 - 이들 업종은 3 년 이내 휴·폐업이 절반(주점·유흥서비스업종은 3 년이내 휴·폐업율이 62%, 10 년 생존율은 11% 내외, KB 금융지주연구소 조사)
- 경쟁이 격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따라 금융부채 비율이 위험수위로 급증

-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 년 145%에서 2011 년 159%로 급증.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의 평균 부채 규모도 6478 만원으로, 상용 근로자(3326 만원)의 2 배에 육박(KB 금융지주연구소)
- 평균 창업비용은 8,027만원이며, 이 창업비용 중 자기자본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가 51.7%(2013.9월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이르고 있으나,
 -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80.7%로 급여생활자(37.8%)보다 2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2012 년, 통계청)되어 자영업 창업 이후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외에도, 퇴직자가 손쉬운 창업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시 프랜차이즈 본부의 무분별한 점포 늘리기, 불공정한 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 점포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피해 등 매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

○ 정부의 자영업(소상공인)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정부(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은 90년대말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책의 일환으로 자영업 창업과 정책자금 지원이 본격적 추진됨
- 이후 다양한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상권분석시스템의 구축, 소상공인 방송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으나, 여전히 창업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이 핵심 정책으로 유지
-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는 과밀업종에 대한 유입조절과 유통·물류체계의 개선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 개별 소상공인들의 창의·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자구노력 지원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공제기금 확충 등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한 생업안전망 구축도 동시에 추진
-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
 - 영세 소상공인의 절반(57.6%)이 월수입 100 만원 이하이며, 이들의 폐업시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소상공인 정책은 사전적인 “생산적 복지” 정책의 성격으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퇴직자의 자영업 성공 창업을 위한 제언

○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성공창업의 지름길

-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단계에서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트렌드를 읽고 적절한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매년 300여개의 새로운 분야의 업종이나 트렌드,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음
- 업종 선택 이후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상권정보(<http://sg.seda.or.kr>) 시스템을 활용하면 무료로 훌륭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손에 질 수 있으며, 또한, 근접지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전문가의 조언도 활용할 수 있음
- 창업시에는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창업 이후에는 세무, 회계, 경영, 홍보, 법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각종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의 실패를 대비한 소상공인 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도 준비하여 폐업이나, 노령화로 퇴역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음

○ 철저한 준비와 실패까지도 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

- 퇴직 이후의 자영업 창업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며, 실패시의 충격은 청년창업에 비해 매우 크고, 재기 가능성도 희박한 것이 현실
- 업종선택, 지역설정, 상권분석 등 철저한 창업 준비와 만일의 상황(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휴·폐업)까지도 대비하는 신중함과 성공사례를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

○ 트렌드를 읽고 시대 흐름에 동승하여야 성공창업

- 웰빙, 고령화, 글로벌화, 1인가족 등등 사회발전 흐름과 트렌드는 자영업 창업의 성패를 매우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똑똑해진 스마트폰은 다이어리와 수첩을 대신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를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고 있음
- 수십년의 풍부한 인생경험과 첨단 디지털 지식을 겸비한 시니어는 도전정신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보다 우수한 자원이라는 점을 자각할 필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부이사관 이인섭 (042-481-4408, leeis@smba.go.kr)

□ 洗心錄

□ 빵은 반으로 나누어도 빵이지만 어린 아기는 그렇지 않다

“빵은 반으로 나누어도 빵이지만 어린아기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드러커가 ‘타협’에 관해 말한 의미 있는 구절이다. 사실 드러커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고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늘 그것에 맞는 결과를 어떤 형태로든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비즈니스 세계에서 타협없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드러커는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경우라도 ‘좋은 타협’과 ‘나쁜 타협’ 두 가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좋은 타협’이란 이쪽이 원하는 것이 반쪽이라고 남아 있는 경우, 즉 둘로 나누었을 때 반쪽이라도 남아 있는 빵의 경우에 해당한다. ‘나쁜 타협’이란 둘로 나눌 경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린 아기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타협하더라도 어떤 실리를 얻을 수 있다든가 원했던 것의 일부가 반영되는 타협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타협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친다.

인간과 인간, 조직과 조직 사이의 관계는 ‘대립’, ‘타협’, ‘통합’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대립은 한쪽의 주장이 전적으로 통하는 승부 관계로서 나중에 복수 당할 가능성이 있다. 타협은 양쪽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통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불만이 있는 관계이다. 반면 통합은 양쪽의 주장을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고 상호간 공존공영을 꾀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말한다.

드러커도 가능하면 세 번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타협도 해야 하는데, 어디까지나 타협은 ‘빵 반쪽’이 전제되어야 한다. 타협이란 한쪽을 자기 편에 두기 위하여 다른 한쪽의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 종종 둘 다 잃는 우를 범한다는 점을 드러커는 강하게 경고한다.

Underpromise, Overdeliver.

덜 약속하고 더해 주어라.

- 톰 피터스(1945~) : 미국의 컨설턴트

□ Book Review

- 제목: 도시의 쓰레기 탐색자

- 쓰레기는 단순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현대 도시의 자화상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성찰의 대상으로, 소비문화와 나날이 커져가는 빈부 격차, 문화적 물질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낭비에 관한 사회문화적 현실을 이야기

- 저자: 제프 페렐(Jeff Ferrell)

- 현재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에서 사회학과 범죄정의학, 인류학 강의
- 혼란한 도시를 파헤치는 《거리를 해부하다: 무질서한 도시에 관한 모험(Tearing Down the Streets: Adventures in Urban Anarchy)》
- 《문화범죄학(Cultural Criminology)》, 《경계의 민족지학(Ethnography at the Edge)》, 《문제 만들기(Making Trouble)》 등 저술
- 1998년 올해의 비평범죄학상을 수상, 현재 뉴욕 대학 선택범죄학(Alternative Criminology) 시리즈의 편집인

○ 주요 내용

- (누추한 흔적) 버려진 가능성과 되찾은 가능성 사이에 흐르는 재건에 대한 가능성 모색이 필요

- 소비문화의 확산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지만 반세계화 운동에 입각하여 강렬한 실천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음
- 각 도시의 소비 형태와 쓰레기를 배출하는 각 공동체의 기준에 대해, 또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디자인된 체계가 없음

- (길거리의 삶) 수천 개의 쇼핑몰과 소매점 등에서 끊임없이 배출되는 쓰레기가 바로 이 세계에 정착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의 물질세계를 재구축

- 부유한 자들에게서 버림받고 가난한 자들에게로, 능력있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됨
- 물건 각각의 진정한 값어치를 발견하는 기쁨에 동참
- 누군가의 잃어버린 동전에 불과했던 것이 나를 통해 그 의미를 되찾는 것

- (길거리의 깨달음) 발드리지 하우스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과 일치
 -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손쉽게 예술이나 여행, 일종의 건강한 삶에 달려들지만, 어느 날 문득 알코올 의존증과 종교 사이,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름없는 술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 (재생의 과정) 우연이든 선택에 의해서든 필요에 의해서든 많이 버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게 쓰는 법을 배우면 됨
 - 누군가 주워도 다시 버려지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선택이 필요(다른 필요한 제품으로의 변형)
 - 소비사회는 계속 버리고 재활용 세계는 이를 회복시키는 역할
- (모으고 보니)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며, 더 이상 쓸데없다고 여겨지는 물건이 있는가, 그럼 예술을 하는 데 사용하면 됨
 - 수집된 중고 물품도 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바로 여기서 상대적인 경제적 자율성이 생겨남
 - 규격화된 건축양식은 끊임없이 천연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상을 망침
- (도시를 구하라) 분명한 사실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누리고 있는 지구촌 경제가 빈곤층에게 대안적인 경제의 틀을 제공해준 적은 없음
 - 도시의 탐색자들은 단순히 소비사회가 버린 것들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은 버려진 것들을 모으고 저장하며 자신들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재생산
 - 더 나쁜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길이 든 세상이기에 낡은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은 더럽고, 남에게 기생하며 살아간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문화적 편견(해비타트 집에 대한 편견)
- (선(禪)의 발견)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원하지도 않으면 됨
 - 후기 자본주의의 지나친 소비문화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한 소비와 버림의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빨라졌고 필요와 욕구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옳다고 느낌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영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영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